

# 나토 본부에 스웨덴 국기 게양...“역사적인 날”

### 나토, 스웨덴 가입으로 발트해 주변 전략적 고리 완성 스웨덴 “평화와 위기 속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11일(현지시간) 새로 합류한 스웨덴 국기를 게양하며 한층 커진 몸집을 과시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스웨덴 국기 게양식에서 “역사적인 날”이라며 “(푸틴은) 나토가 유럽 내 어떤 나라로도 확장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을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오히려 정 반대 결과를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엄청난 전략적 실수”라고도 지적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스웨덴의 합류가 “특히 북유럽과 발트해 지역 안보에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며 “핀란드

와 스웨덴 보호는 물론 발트해 지역 전역을 보호하기 위한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윌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나토 가입이 “200년 이상의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끝낸 뒤의 역사적 조치이자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나토 동맹으로서 “비용과 책임, 그리고 위협을 동맹들과 함께 분담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7일 나토 32번째 회원국이 된 스웨덴의 합류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스웨덴 왕위 계승자인 빅토리아 공주를 비롯해 스웨덴 주요 부처 장관들과 6개 정당 대표단이 참석했다.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본부에 스웨덴 국기가 게양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나토 각국 대표단도 참석했다.

스웨덴 국기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스페인과 튀르키예 사이에 게양됐다.

스웨덴은 2022년 5월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으나 튀르키예, 헝가리의 잇단 제동에 가입 절차가 지

연된 끝에 1년 10개월 만에 나토 집단방위 체제에 완전히 합류했다.

나토로서 지난해 4월 핀란드에 이어

북유럽 군사 강국인 스웨덴까지 품으면 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발트해에서 러시아를 사실상 완전히 포위하는 형세를 갖추게 됐다.

다만 나토는 북유럽 일대에 미군 핵무기 추가배치 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관련 질의에 “핵무기와 관련해 (참여) 국가를 늘릴 계획은 없다”며 “발트해 국가에서처럼 예를 들어 스웨덴에 전투단을 신설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이는 전적으로 스웨덴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도 “행사에 스웨덴 영토에 나토 영구주둔 기지나 핵무기를 배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거리를 뒀다.

미국은 핵 공유 체제에 따라 나토 5개 회원국(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튀르키예)에 전술핵무기를 배치·운영하고 있다. 최종 사용 권한은 미국에 있다. /연합뉴스



## 태국, 국경 지역서 필로폰 1천100만정 압수

### 역대 최대 규모...크리스탈 메스도 141kg 적발

태국 경찰이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마약을 적발했다. (사진)

12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은 미얀마와 인접한 북부 매홍순주 뺨이 지역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1천100만정과 ‘크리스탈 메스’로 불리는 합성 마약 141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국경순찰대는 지난 7일 마약 알약 70만정과 크리스탈 메스 100kg가 담긴 자루 37개를 발견했다.

8일에는 필로폰 120만정과 크리스탈 메스 35kg이 담긴 자루 8개를 찾아냈다. 이어 인근에서 필로폰 알약 238만여

정과 크리스탈 메스 약 7kg를 추가로 압수했다.

당국은 이번 마약 단속 규모가 금세기 최대라고 설명했다.

정보기관 소식통은 관광객으로 위장한 밀매업자들이 마약을 먼저 치앙마이로 운반할 예정이었으며, 이후 호주를 거쳐 미국으로 유통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체타 모시카랏 매홍순 주지사는 “매홍순 모든 지역을 살살이 살펴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밀매를 방지하기 위해 내무부와 함께 이번 작전을 펼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국인,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첫 체포...모스크바에 구금

### “국가 기밀정보 외국정보기관에 넘긴 혐의”

한국인 1명이 올해 초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타스 통신은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이 한국인의 성씨가 ‘백’씨라며 실명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백씨가 올해 초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됐고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

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그가 지난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체포 시점 수개월 뒤 이런 사실이 국영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진 셈이다.

타스 통신은 또 백씨가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형사 사건 자료가 ‘일급기밀’로 분류됐다고 보도했다.

보안이 워낙 철저하게 유지돼 혐의의 세부 내용 등에 관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체포 사실을 인지

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금된 백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 1월 중국에서 육로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입국한 뒤 며칠간 생활하던 중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다. 그는 종교 관련 종사자로 알려졌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 함께 온 백씨 아내도 FSB에 체포됐으나 풀려나 현재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가 구금된 레포르토보 구치소는 거의 모든 수감자를 독방에 가두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간첩 혐의로 구금 중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도 이 구

치소에 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특별군사작전 이후 한국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백씨의 석방이 늦어지거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북리 밀착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리 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러시아 형법에서 간첩 행위에 대한 조항은 러시아 국가기밀이나 군대·당국의 보안 등에 대한 정보를 외국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집·질도·저장하는 등의 혐의가 있는 외국 시민권자와 무국적자에게 적용한다. /연합뉴스

## 북한-일본, 월드컵 아시아 예선 예정대로 평양서 개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4차전 북한과 일본의 경기가 애초 예정대로 오는 28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리게 됐다.

일본축구협회는 지난 11일 아시아축구연맹(AFC)에서 이런 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 시작 시간은 오후 5시다.

AFC는 최근 평양을 방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점검했다. 이 경기에 앞서 북한과 일본의 조별리그 3차전은 3월21일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치러진다. 북한이 안방에서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치르는 것은 4년여만이다.

북한은 2019년 10월15일 김일성경기장에서 한국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를 치른 뒤 A매치 홈 경기를 연 적이 없다.

앞서 지난달 치러진 북한과 일본 간 2

024 파리 올림픽 여자 축구 예선 1차전 경기 장소는 원래 평양 김일성경기장으로 예고됐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 제다로 바뀐 바 있다.

AFC가 환경권 미비와 경기운영을 둘러싼 불투명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북한 측에 대체 장소 제시를 요구하다 경기장소 변경을 통보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안전기원제 고사

시제상

제사상

고사상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부패